KB증권

반도체 / 전기전자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ESG / 통신 Analyst 김준섭
02-6114-2935 joonsop.analyst@kbfg.com

AI

AI 인프라, 강세 사이클 장기화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4년 4월 24일

글로벌 빅테크 AI 올인 전략: AI 투자 확대는 현재 진행형

4월 22일 일본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2025년까지 1,500억엔 (1.3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집행하고, 최근 일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6,000억원 규모)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어 전용 생성형 AI 개발 계획을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생성형 AI로 운영되는 콜센터 최적화 프로젝트도 추진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는 올해까지 3,900억개 파라미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조개 파라미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AI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구글 역시 AI 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18일 알파벳의 자회사 딥마인드 CEO 허사비스가 경쟁사인 MS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GI 슈퍼컴퓨터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 논평하면서 구글은 그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종 수요처, 산업의 AI 채택 급증: ① 글로벌 상품 트레이더 ② 미 은행

글로벌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도태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AI에 대한 극단적 전략 배경에는 AI 최종 소비자인 산업과 기업의 AI 채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나 금속 등 상품 트레이더들의 AI 채택 경쟁 가속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상품 가격을 예측하는데 인공지능 (AI)을 적용하면서 경쟁사 대비 거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 원유 트레이더 기업인 Vitol (스위스 기반, 2023년 순이익 130억 달러)은 2022년 AI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팀을 창설한 후 그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고, 대표적 금속 트레이더 기업인 Trafigura (싱가포르 기반, 2022년 순이익 150억 달러)는 AI를 위한 설비투자 (capex) 규모를 확대 중 (2022년 66억 달러 → 2023년 80억 달러)에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Vitol CEO인 Russell Hardy는 거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상품 트레이더 (commodity traders)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집약 산업인 은행에서도 AI 수요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대형 은행은 고객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AI를 접목하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엔비디아 2024). JP모건 체이스는 현재 2,000명 이상의 AI 전문가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캐피털원의 AI 특허 출원은 전체 특허 출원의 67%를 차지하는 등 AI 활용의 비즈니스 접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기기) 수요 급증세: 과거와 달리 강세 사이클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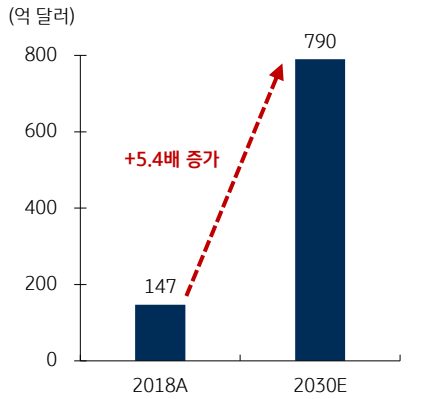
최근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며 일각에서는 AI 생태계 확장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AI 수요 기업의 AI 채택 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은 태양광 업체에 2천만 달러 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청정에너지 확보로 AI 인프라 수요의 강세 사이클 장기화 전망 때문이다. 특히 ① 반도체 공장 자국 유치 경쟁, ② AI 데이터센터 확대 경쟁, ③ 친환경 에너지 발전 경쟁 등 막대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는 3대 분야에서 글로벌 확대 경쟁이 향후 수 년간 불가피하다. 해외 반도체 신 공장, AI 데이터센터 구축, 친환경 발전 확대 등은 과거 반도체와 전력기기 사이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요다. 이번 반도체, 전력기기 사이클이 과거 사이클과 달리 장기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삼성전자 (005930), SK하이닉스 (000660), HD현대일렉트릭 (267260), LS일렉트릭 (010120), LS (006260), 대한전선 (001440)의 수혜가 기대된다.

글로벌 AI 투자 경쟁 가속화

기업	투자 내용
Open AI	AI 반도체 제조 위한 7 조 달러 자금 조달 추진
Softbank	AI 반도체 벤처 설립 위한 1,000 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
Amazon	AI 데이터센터 1,500 억 달러 투자 계획
Open AI Microsoft	AGI 용 슈퍼컴퓨터 스타게이트 1,000 억 달러 투자 집행
Google	1,000 억 달러 이상 AI 투자 계획

자료: 각 사, KB증권

북미 은행권 AI 투자 전망



자료: IHSmarkit, KB증권

투자자 고지 사항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역 (주가 —, 목표주가 —)

종목명	인수 합병 업무관련	1년이내 IPO	BW/CB/EB 인수계약	유상증자 모집주선	주식 등 1% 이상보유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파생 등 유동성공급	ETF 설정/해지	ELW 발행/유동성공급	채무이행 보증	계열사 관계	공개매수 사무관련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LS												
대한전선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등급 비율 (2024. 03. 31 기준)

매수 (Buy)	중립 (Hold)	매도 (Sell)
87.6	12.4	-

투자의견 분류 및 기준

종목 투자의견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 기준)

Buy: 15% 초과	Hold: 15% ~ -15%	Sell: -15% 초과

비고: 2017년 2월 23일부터 KB증권의 기업 투자의견 체계가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Underperform)에서 3단계 (Buy, Hold, Sell)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종목 투자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절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절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업 투자의견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 기준)

Positive: 시장수익률 상회	Neutral: 시장수익률 수준	Negative: 시장수익률 하회

비고: 2017년 6월 28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의견 체계가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에서 (Positive, Neutral, Negative)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KB증권의 산업 투자의견 제시 기준이 6개월 예상 상대수익률에서 12개월 예상 상대수익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